

푸틴 정권교체?...바이든 발언에 발칵

“더는 권력 가져선 안돼”

러 정권교체로 해석 잇따라

백악관 ‘화들짝’ 국무장관도 해명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의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언은 26일 그가 폴란드에서 한 즉석연설 중 단어 9개였다.

그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 더는 권력을 유지해선 안 된다”(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라고 했고 이는 곧장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미 언론의 대서특필로 이어졌다.

원고에 없던 이 발언은 러시아의 인위적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미 행정부의 외교·군사 정책 기조에서 정면으로 벗어난 것이어서 큰 논란을 초래했다.

백악관은 즉시 대통령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별도 설명자료를 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침략을 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다른 어떤 (국가의) 정권교체 전략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를 놓치지 않고 “그것은 바이든 씨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오직 러시아 연방 국민의 선택”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워싱턴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No)라고 일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의 단어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무겁다”고 언급했다며 즉흥적인 9개 단어가 전 세계적 대소동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고도로 계산된 외교 전략인지, 종종한 일정을 소화하다 격양된 감정 탓

에 새어 나온 말실수인지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발언 직전에는 폴란드와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 대한 폭격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CNN은 전했다.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상대로 등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폴란드로 대피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만난 후에는 푸틴 대통령을 ‘도살자’로 일컬었다.

17일에는 푸틴 대통령을 향해 ‘살인 독재자’, ‘순전한 폭력배’라고 비난했다. 그보다 하루 전인 16일에는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부

각해 유럽·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단일 대안을 유지하려 하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발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센 발언’을 놓고 시각이 갈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한 방송에 출연, 바이든 대통령의 ‘도살자’ 발언을 겨냥해 러시아를 멈춰 세우려면 단어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나뮈 자하위 교육부 장관은 이날 TV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러시아 국민들에 달렸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의 운명은 러시아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탈리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는 견해가 나왔다. /연합뉴스



러시아군 포격으로 무참히 파괴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한 아파트 앞에서 27일(현지시간) 발렌티나 데무라(70)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할머니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실에서 대피 생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진 후 암흑천지로 변한 도쿄 일본 수도 도쿄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져 17일 새벽 행인들이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16일 오후 11시 36분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영향으로 도쿄 등 수도권에서 200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다. /연합뉴스

일본 국민 53% “원전 재가동해야”

전력부족 우려에 9%p 늘어

79% “미국과 핵 공유 논의해야”

최근 일본에서 전력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안전이 확인된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지난 25~27일 18세 이상 성인 976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 재가동 기준을 충족해 안전이 확보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응답이 53%, ‘재가동하지 않아야 한다’가 38%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조사와 비교하면 재가동 찬성 의견 비율이 9%포인트 늘었고 반대 의견

은 8%포인트 줄었다.

닛케이에 이날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부 화력발전소가 정지해 전력 공급이 부족해진 점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강진 여파로 지난 21~22일 도쿄 등 수도권과 도호쿠(동북) 지역에 전력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력 부족 상황이 심각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가 이후 새 기준을 충족하는 원전은 차례로 재가동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 논의와 관련해서는 79%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터키에 시리아 난민 위한 ‘서울 중학교’ 개교

6·25 전쟁 ‘양카라 학교’ 서 착안

터키 남동부 산르우프라주(州)의 하란 지역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인도 지원 사업으로 세워진 ‘서울 중학교’가 개교했다.

서울 중학교는 한국 정부의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한 인도 지원 사업의 하나로 설립됐으며, 개교일 현재 학생 수는 터키와 시리아 난민 학생을 더해 총 257명이다.

서울 중학교로 교명을 정한 것은 양카라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6·25 전쟁 당시 터키 참전용사들이 한국 고아를 위해 ‘양카라 학교’를 세운 것에서 착안했다.

25일 열린 개교식에는 이원익 주터키한국 대사, 압둘라 에린 산르우프라 주지사, 자합 코츠 하란 군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 중학교의 교스테 교르군 교장은 “재학생들이 한국, 특히 서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학교 이름을 매우 좋아한다”며 “한국어 교육 등 한국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원익 대사는 6·25전쟁, 2002년 월드컵 등을 언급하면서 “‘서울’이라는 학교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인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산르우프라 주에서는 이날 한국 정부의 또 다른 인도 지원 사업으로 건설된 ‘예네제 난민보건소’의 개원식도 열려 지역 주민의 호응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2016년부터 터키 내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양카라, 이즈미르, 콘야, 아다나, 메르신 지역에 보건소를 건설했으며, 이번 산르우프라 보건소 건설로 6개 보건소 건설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러·우크라, 터키서 5차 평화협상 ...우크라 중립국화 등 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터키에서 5차 평화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협상 개시일에 대해서는 양측의 발표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단 구성원인 다비드 하라하미야 집권당 대표는 SNS를 통해 “오는 28~30일 터키에서 대면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측 협상대표단을 이끄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도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의 오프라인 회담이 29~30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오늘 우크라이나 측과 화상

회의가 열렸다”며 “그 결과로 29~30일 오프라인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스는 회담에 참여한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화상으로 많은 것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 소식통은 “우리는 온라인 형식으로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후 터키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날 통화했으며, 두 정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단이 이스탄불에서 회담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터키 대통령실도 회담 개시일을 구체적으로 밝

히지 않았으나, 이브라힘 칼린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화요일(29일) 회담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7일 세 차례 대면 회담을 했으며, 14일부터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4차 회담을 이어왔다.

양측이 28일이나 29일 터키에서 대면 회담을 할 경우 이는 5차 회담이 된다.

양국 대표단은 협상을 통해 민간인 대피를 통한 인도주의적 통로 설치 등에 합의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시도 철회 등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h2>장성 토지(매매 분양)</h2>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중급반</p>
<p>1 200평 (27) 2 300평 (40.8) 3 160평 (21.76) 4 161평 (21.5) 5 280평 (37.4) 6 150평 (20) 7 158평 (21.2) 8 150평 (20) 9 110m (208평) 6m 도로</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p> <p>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p> <p>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h1>010-6670-9800</h1>		